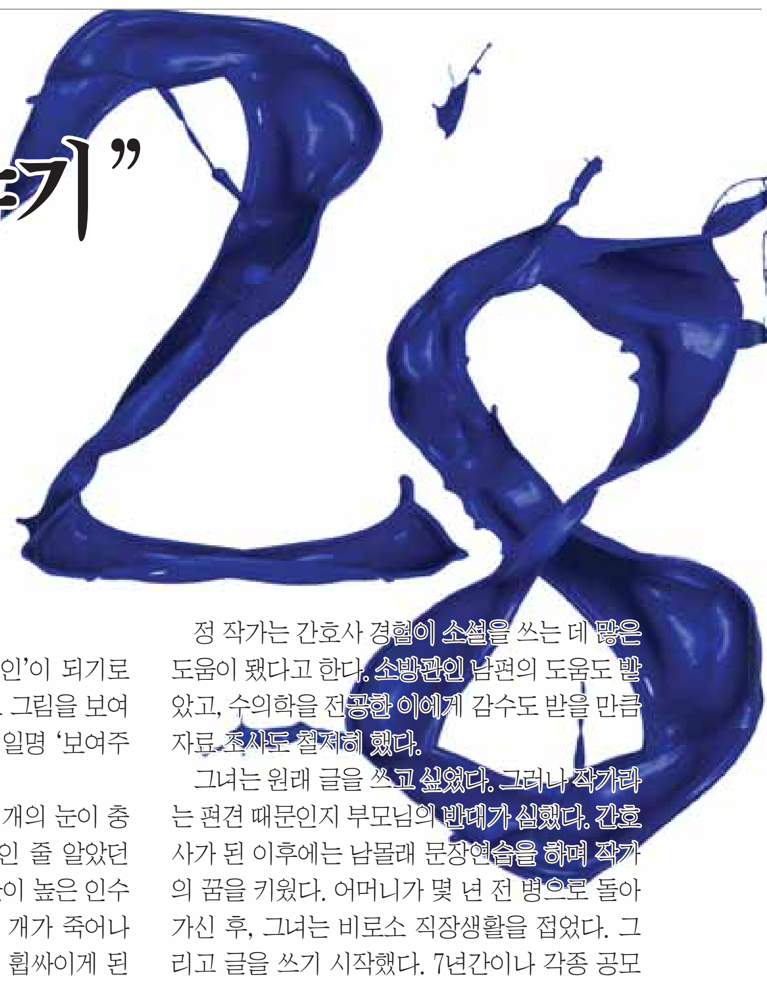
"인간과 인간, 개와 인간의 뒤얽힌 복수와 애증 이야기"

함평출신 정유정 신작 '28' 숫자 코드 해석, 이 작품의 묘미



숫자에는 다양한 상징이 드리워져 있다. 문화권마다 수가 지니는 의미 또한 독특하다. 우리나라는 4가 죽음과 불행을 뜻하지만 서구는 13이 재앙을 불러오는 수로 인식된다. 이처럼 수는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7년의 밤'의 정유정(47) 작가가 최근에 펴낸 장편소설 '28'(은행나무 간)은 숫자를 제목으로 내걸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조짐을 보이는 '28'은, 독자가 숫자의 코드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묘미를 선사한다.

소설은 사람과 개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소재다. 5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스케일과 특유의 문제의식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한다. 실제로 작가는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자는 제안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함평 출신 정 작가는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로 세계청소년문학상을, 2009년 '내 심장을 쏴라'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2011년에는 장편 '7년의 밤'이 30만부 넘게 팔리기도 했다.

신작 '28' 발간을 계기로 기자 간담회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작가를, 최근 광주 일곡지구 카페에서 만났다. 작년 여름 글을 쓰기 위해 지리산에 들어가면서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작가는 광주에 오고서야 전화를 개통했다며 멋쩍어 했다.

"전통적인 한국 소설 문법이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면 영미소설 방식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한국 소설이 인물간의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둔다면 제 소설은 스토리를 풀어내는 서사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 작가는 데뷔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빚진 게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문단 데뷔는 국문과나 문예창작과에 진학해, 신춘문예나 문예잡지로 등단하는 게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녀는 문학 관련 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신춘문예 출신도 아니다. 문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간호학(광주기독간호대학)을 공부했고 보훈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문단 데뷔도 2007년 문학상 공모를 통해서였다.

"한국 문단에서 통용되는 주류 방식이 저와는 맞지 않았죠. 세계문학상을 수상하고 나자 흔히 말하는 '문단 길들이기'가 시작됐어요. 저는 그것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정 작가는 스스로 문단의 '이방인'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한다. 이번 소설에서도 그림을 보여주면서 퍼즐을 맞추게 하는 방식, 일명 '보여주기'로 서사를 풀어낸다.

서울 인근 도시 '화양'에 사람과 개의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번진다. 흔한 질병인 줄 알았던 이 병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판명된다. 사람과 개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당국은 서울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를 폐쇄한다.

주인공인 수의사 재형은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이다. 그는 알래스카 개썰매 대회에 참가했다가 맞닥뜨린 위기의 상황에서 혼자만 살아났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지만 어느 날 익명의 투서로 한진일보 김윤주 기자가 탐사보도를 함으로써, 그는 위기에 빠진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서 상황은 미궁속으로 빠져든다.

"인간과 인간, 개와 인간의 얽히고 설킨 복수와 애증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어요. 몇 년 전 구제역 파동 때 돼지를 한꺼번에 매장시키는 동영상을 보고 모티프를 얻었죠."

정 작가는 간호사 경험이 소설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소방관인 남편의 도움도 받았고, 수의학을 전공한 이에게 감수도 받을 만큼 자료 조사도 철저히 했다.

그녀는 원래 글을 쓰고 싶었다. 그러나 작가라는 편견 때문인지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 간호사가 된 이후에는 남몰래 문장연습을 하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 어머니가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신 후, 그녀는 비로소 직장생활을 접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7년간이나 각종 공모전에 응했지만 그때마다 떨어졌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2007년 한국 문단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다.

2013년, 작가가 다시 2년 터울을 두고 선보인 '28'은 4주라는 시간을 뜻한다. 작가는 "28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백신을 개발할 수도, 급속도로 번지는 전염병을 차단할 수도 없다"며 극한의 상황을 상징한다고 귀띔한다.

얼핏 '불볕'이라는 뜻의 도시 '화양'은 빛고을 광주를 연상케 한다. 5·18때 고립되었던 광주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정 작가는 '28'을 해석하는 건 독자의 몫이라며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뮤지컬 스타' 라민 카림루 직접 만난다

'오페라 유령'·'레 미제라블' 출연… 5일 첫 내한 광주 공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뮤지컬 스타를 만난다.'

지난 2010년 영국 웨스트 엔드에서 열린 '레 미제라블 25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영상은 국내 뮤지컬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특히 'Do you here the people song'을 부른 앙졸라 역의 라민 카림루는 이듬해 열린 '오페라 유령 25주년 기념 콘서트'에서도 주인공 팬텀 역으로 출연,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였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레 미제라블'의 주요 배역을 모두 소화하며 뮤지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민 카림루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서울 공연에 이어 오는 5일 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지방에서는 광주가 유일하다.

이란 출생으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라민 카림루는 지난 2002년 '레 미제라블'의 '마리우스' 언더 스터디로 시작한 후 이듬해 '오페라의 유령'의 라울을 맡아 갈채를 받았다. 2005년 '미스 사이공'의 크리스 역을 거쳐 지난 2011년 '레 미제라블'에서 제작자 카메론 메킨토시의 제안으로 주인공 장발장으로 출연, 인기를 모았다.

뮤지컬 배우 뿐만 아니라 가수로서도 개인 작업을 계속해 온 그는 자신의 밴드를 꾸려 단독 앨범 'Ramin'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표작 '오페라의 유령'의 'Music Of The Knight', 자작곡 'Show Me Light' 등 앨범 수록곡과 '레 미제라블' 등 그가 불렀던 많은 뮤지컬 넘버 가운데 엄선된 곡들을 선사한다. 티켓 가격 8만8000원, 7만7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권 국학진흥기관 서명운동 나서

광주, 전남·북 국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 국학진흥 허브 기관 설립서명 청원운동이 시작된다.

(사)한국학호남진흥원은 지난 2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호남권 국학진흥을 위한 호남권 국학 연구자 집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재수 전 광주교대 교수, 이상식 전 전남대 교수, 송만오 전주대 교수 등 광주 및 전남·북 지역 국학 연구자 30여 명과 송경종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추진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추진중인 '호남권 국학자료 현황조사 및 보존·활용방안 연구 사업'과 근현대 호남권 국학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학 연구자들은 호남권 국학·전통문화 진흥기관을 조속하게 설립해줄 것을 촉구하는 설립서명 청원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추진위 조성식 기획처장은 "그동안 서원, 향교, 유림 대표자 집담회를 여는 등 호남권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왔다"며 "내년 1월 문광부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건립, 운영, 사업 계획이 나오면 한국학호남진흥원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8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3300㎡ 규모의 한국학 호남진흥원 건립을 요청하는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